

서로 완주애  
무장예술축제

2024

우리 서로 함께 웃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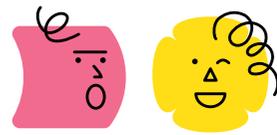
FESTIVAL GUIDE

작품 및 작가 돋보기

# 목차

CONTENTS

|         |   |    |
|---------|---|----|
| 축제개요    | 2024 무장애문화예술축제 '서로'   | 01 |
| 개막공연    |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 02 |
| 초청공연    | 이그르산 재즈트리오 / 판타스틱   | 03 |
| 공연·상영   | 예수재활원 풍물단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댄스팀 / 한사랑 / 마루 /<br>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댄스팀 / 우바우 /<br>다애공동체 댄스팀 / 극단 '모두 다 꽃'                                 | 05 |
| 초대작가    | 임경문 / 최춘기 / 홍성미   | 13 |
| 만들기(공예) | 강형순 / 김미정 / 김상봉 / 남동희 / 마루(강승현 외 8) / 박은희 /<br>박정운 / 배애심 / 유연주 / 이오순 / 정수자 / 정우상 / 최병식 / 한경희                                      | 16 |
| 글쓰기(문학) | 김군자 / 김수연 / 김은숙 / 박양례 / 배춘자 / 이현숙 / 정금옥 /<br>조정자 / 허종단  | 30 |
| 사진      | 강경숙 / 김민성 / 김승관 / 김춘석 / 박병익 / 배상철 / 이신 / 이옥임 / 최병익  | 39 |
| 그림 (회화) | 김양숙 / 김재이 / 박순임 / 손명옥 / 양단영 / 양희춘 / 윤해란 /<br>이영미 / 이인순 / 이인자 / 이현준 / 이혜순 / 정가영 / 정미자 /<br>정연아 / 하구은 / 하구혜 / 하다숙 / 하민음 / 허은지 / 홍귀범 | 48 |



## 2024 완주무장애예술축제

# 서로

2024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자, 여자, 어르신, 어린이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우리 서로 함께 웃자'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문화예술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즐겁게 '웃자'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인 89명과 전문예술인 14명 총 103명의 예술인이 준비한 10개의 공연과 112점의 그림, 공예(만들기), 글, 사진 작품이 선보입니다. 다름이 가능성이 되고, 다름이 새로움이 되는 작품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정보형 작곡, 장상영 편곡) 음악(합창)

###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강경숙, 강석준, 강태일, 고근영, 권남기, 김남철, 김동혁, 김승관, 김언경, 김춘석, 김형석, 남동희, 박경옥, 박상수, 박정우, 박정운, 송기순, 신귀숙, 신경순, 양단영, 유종섭, 윤해란, 이순자, 이승철, 이 신, 이옥임, 이원상, 이은정, 임정화, 정규한, 정우상, 정하나, 최서연, 하구혜, 하믿음, 한원희, 한경희, 허은지, 홍귀범

합창단 "꽃"은 완주군 최초의 장애인 합창단이다. 서로 다른 음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화음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른다. 합창단 단원들은 매주 노래를 부르며 일상에서의 즐거움과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제7회 전북장애인합창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

## 이그르산 재즈트리오가 들려주는 너와 나의 하모니 음악(재즈)

### 이그르산 재즈트리오

*with* 소프라노 박서정      노용현, 박윤희, 오은하

---

피아노의 오은하, 드럼의 노용현, 베이스의 박윤희로 이루어진 '이그르산 재즈트리오'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남미 리듬으로 새롭게 연주한다. 남미 리듬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에서 만든 특별한 음악의 박자를 말한다. 이그르산 재즈트리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 판굿 국악(풍물)

### 판타스틱

강영호, 김지연, 김현권, 김형준, 안예송, 이종휘, 임채경

문화예술공동체 “판打stick(판타스틱)”은 2006년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단체이다. 판타스틱은 지역의 크고 작은 공연과 청소년들을 위한 국악공연, 해외 공연, 축제 기획공연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전통 예술을 새롭게 표현한 공연 '판打stick(판타스틱)', '타락(打樂)', '풍류락(風流樂)'이 있다. 2008년 전문예술단체가 된 판타스틱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멋을 알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 선보이는 '판굿'은 여러 지역의 농악을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흥겹게 함께 노는 연희놀이 무대이다.



## 설장구사물 국악(풍물)

### 예수재활원 풍물단

노상신, 양단영, 하구은, 하구혜, 하다숙, 하민음, 허은지

예수재활원 풍물단의 설장구사물은 장구가 중심이 되는 사물놀이이다. 먼저 장구가 '다스림'이라는 공연 시작을 알리는 장단을 치고, 곧 이어 느긋하고 경쾌한 굿거리 장단을 연주한다. 그 다음에는 팽과리, 장구, 북, 징으로 악기를 바꾸어 흥겹고 신나는 자진모리 장단을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팽과리가 연주하는 빠르고 강한 휘모리짜식쇠로 마무리한다.



## 순정, 잘 될거야 무용(댄스)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댄스팀

강승현, 김시은, 남재옥, 류대곤, 박규복, 박서희, 박순임, 신호식, 양지수, 유도담, 유제민, 이영미, 이인순, 이정일, 장덕란, 장도현, 정가영, 정미자, 정충현

강승현, 김시은, 남재옥, 류대곤, 박규복, 박서희, 박순임, 신호식, 양지수, 유도담, 유제민, 이영미, 이정일, 이인순, 이정일, 장덕란, 정가영, 정미자, 정충현 1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관 댄스팀은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무대를 준비했다.



## 지금! 우리는 2024 연극

### 한사랑

강경숙, 강석준, 강태일, 고근영, 김남철, 김민성, 김승관, 김인환, 김춘석, 박상수, 박정우, 신경순, 신요한, 양인선, 이순자, 이신, 이옥임, 이원상, 장성중, 정규한, 한원희

한사랑 연극팀은 강경숙, 강석준, 강태일, 고근영, 김남철, 김민성, 김승관, 김인환, 김춘석, 박상수, 박정우, 신경순, 신요한, 양인선, 이순자, 이신, 이옥임, 이원상, 장성중, 정규한, 한원희 총 21명이 함께하는 예술팀이다. 이번에 공연하는 <지금! 우리는 2024>는 회원 김00님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다.



## 리듬장구 국악(풍물)

### 마루

강승현, 김시은, 박서희, 양지수, 유도담, 이정일, 장도현, 정충현

마루 장구팀은 강승현, 김시은, 박서희, 양지수, 유도담, 이정일, 장도현, 정충현 8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신나는 전통 음악에 맞춰 장구를 연주하고 민요를 부른다.



## 슈퍼맨, 추억속으로 무용(댄스)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댄스팀

김영애, 김정배, 김정임, 김현숙, 김호연, 노정순, 박건태, 박준호, 박현진, 소현정, 손수민, 송동민, 유태조, 이은용, 최명자, 최성심

김영애, 김정배, 김정임, 김현숙, 김호연, 노정순, 박건태, 박준호, 박현진, 소현정, 손수민, 송동민, 유태조, 이은용, 최명자 최성심 16명이 함께 하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댄스팀은 센터에 모여 함께 춤추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영상(다큐멘터리)

### 우바우

강태일, 고근영, 김민성, 김승관, 김인환, 김춘석, 신경순, 이순자, 이신, 장성중, 신요한, 정규한, 한원희

우바우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줄임말이다. 한사랑 영상팀 우바우가 만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리들의 꿈'이다. 각자의 꿈은 무엇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지금은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 청춘시대 무용(댄스)

### 다애공동체 댄스팀

국세미나, 곽정미, 송예랑, 오지수, 이미용

다애공동체 댄스팀은 국세미나, 곽정미, 송예랑, 이미용, 오지수 5명이 모인 팀이다. 트로트 음악에 맞춰 안무를 만들고 매일 댄스 연습 겸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



## 우리마을 합창단 연극

### 극단 '모두 다 꽃'

김미란, 김시은, 박서희, 박수임, 박정은, 양지수, 유도담, 윤선희, 이선희, 이영미, 이인순, 이정선, 정가영, 정미자

김미란, 김시은, 박서희, 박수임, 양지수, 유도담, 윤선희, 이선희, 이영미, 이인순, 이정선, 정가영, 정미자 14명이 함께 하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 극단 '모두 다 꽃'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자 한다.



## 임경문

임경문 작가는 38년 째 전통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이다. 오랜시간 선생님들께 배운 전통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며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인 '화심도요'는 완주군 소양면에 있다. 작가는 이곳에서 전통 도자기를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경문 작가의 도자기 제작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도자기 제작은 흙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연에서 찾은 흙을 물과 섞어 흙탕물을 만든 뒤 체에 거른다. 나무뿌리와 나뭇잎, 돌 등이 걸러지고 남은 고운 가루를 그늘에서 말린 뒤 반죽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점토를 '발물레'라는 도구에 올려 도자기의 모양을 만든다. 도자기 모양이 완성되면 그 위에 조각을 하거나 도장(인화문)을 찍어 무늬를 넣는다. 그 후에는 색깔이 다른 흙으로 무늬를 채워 넣고, 다 마르면 무늬가 잘 보이게 굽어낸다. 잘 말린 도자기는 장작 가마에 넣어 2박 3일 동안 굽는다. 이후 자연 재료로 만든 유약을 바르고, 다시 5박 6일간 가마에서 구워내면 도자기가 완성된다.

분청사기 상감 연화문 향아리  
가로 31cm×세로 31cm×높이 75cm  
상감기법, 양각기법, 인화문



## 최춘기

최춘기 작가는 완주에서 태어나 소를 키우며 살다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이제는 개인 전시회와 단체 전시회도 여는 화가이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었지만, 자연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음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산과 나무, 폭포 등의 자연은 작가의 마음속에서 나와 그림으로 그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짐으로써 생명을 얻는 듯하다.



### 매향 1

가로 117cm × 세로 91cm  
장지(한지)에 과슈물감

## 홍성미

홍성미 작가는 나무판, 마스크, 후라이팬 등 더 이상 쓰지 않는, 수 없이 버려지는 것들 위에 그림을 그린다.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물건들에 그림을 그리고 설치해서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 기억하라

가변 설치(설치 방법에 따라 크기가 달라짐)  
페마스크에 유성펜

---

## 강형순

강형순 작가는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지인과 가족에게 자주 선물한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 도자기를 만들었다.

---

---

### 마음을 담는 그릇

가로 15cm × 세로 10cm × 높이 8cm

도자기



---

## 김미정

김미정 작가는 빨간색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작품도 모두 빨간색으로 제작했다. 평소에 자녀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어서 이번 가족공예 작업이 작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



---

미니핸드백

가로 20cm × 세로 12cm

가죽에 손바느질

## 김상봉

김상봉 작가의 작품은 나무판에 나무조각과 꽃으로 장식해 완성했다. 작품의 중앙에 'LOVE'라는 영어 단어를 붙여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표현했다.

### 나무액자

가로 25cm × 세로 17cm  
나무에 조각과 꽃으로 장식



---

## 남동희

남동희 작가의 석고방향제 작품은 하얀 석고틀 안에 모두가 좋아하는 파란 바다를 담았다. 이것은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모든 사람들이 떠올린 시원한 작은 바다의 모습이다.

---



---

석고방향제

가로 11cm × 세로 5cm  
석고가루, 물, 향기오일

---

**마루** (강승현, 김시은, 박서희, 양지수, 유도담, 이정일, 장도현, 정충현)

강승현, 김시은, 박서희, 양지수, 유도담, 이정일, 장도현, 정충현 8명의 작가가 따로 또 함께 만든 작품이다. 이 모자는 작가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의 종이 끈과 리본을 골라 만들었다. 다양한 색깔의 모자들은, 봄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닮았다.

---



---

**지끈모자**

가로 13cm × 세로 13cm × 높이 6cm

지끈(종이끈)과 리본으로 장식

---

## 박은희

박은희 작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빨강게 잘 익은 딸기를 담았다.

---



---

새콤달콤한 딸기 접시  
가로 10cm × 세로 20cm  
도자기

---

## 박정운

박정운 작가의 수틀액자는 스칸디아모스 이끼를 한 땀 한 땀 붙여 만든 작품이다. 스칸디아모스 이끼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공기 중의 습기(수분)을 조절해 주기도 한다.

---



---

### 스칸디아모스 수틀액자

가로 17cm × 세로 17cm

수틀액자에 스칸디아모스 이끼, 안개꽃 장식

---

## 배애심

배애심 작가는 가죽을 이용해 열쇠고리를 만들었다. 일찍 결혼해서 아내와  
엄마로 살던 작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시작  
할 수 있었다. 가죽공예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중 하나다.

---

---

### 키링

가로 3cm×세로 10cm  
가죽에 손바느질



## 유연주

유연주 작가는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다. 이 작품은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예수님 성만찬' 그림을 보석십자수로 완성한 것이다. 보석십자수는 그림의 색에 맞춰 작은 모형 보석을 붙이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 예수님 성만찬

가로 108cm×세로 55cm

캔버스에 모형보석



---

## 이오순

이오순 작가는 손으로 하는 작업에 재능이 많다. 한지수면등 작품에는 독립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



---

### 한지수면등

가로 10cm×세로 10cm×높이 23cm  
나무, 한지

---

## 정수자

정수자 작가는 다양한 색을 잘 사용한다. 특히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 색으로 꾸미기를 좋아한다. 이 작품 또한 툄는 색깔이 돋보인다.

---



---

알록달록 모양 볼

가로 15cm×세로 15cm×높이 9cm

도자기

---

## 정우상

정우상 작가의 테라리움은 공 모양의 유리 안에 이끼와 휘토니아 식물을 심어 만든 작은 정원이다. 이 작은 정원에 있는 이끼와 식물은 모두 살아 있어서, 물을 뿌리면 조금씩 자라난다. 테라리움은 유리병이나 유리로 된 공간에 식물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

### 테라리움

가로 12cm × 세로 12cm × 높이 15cm  
공 모양 유리에 이끼, 식물을 넣어 장식

---

## 최병식

최병식 작가의 유리 조명은 나무와 동그란 유리 안에 꽃과 전구를 넣어 만든 작품이다.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켜면 은은한 불빛이 나와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



---

### 유리돔 무드등

가로 11cm × 세로 11cm × 높이 14cm

원목 유리 조명에 꽃과 전구로 장식

---

## 한경희

한경희 작가는 가죽공방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작품을 만든다. 이 작품은 가죽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바느질해서 완성한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핸드백'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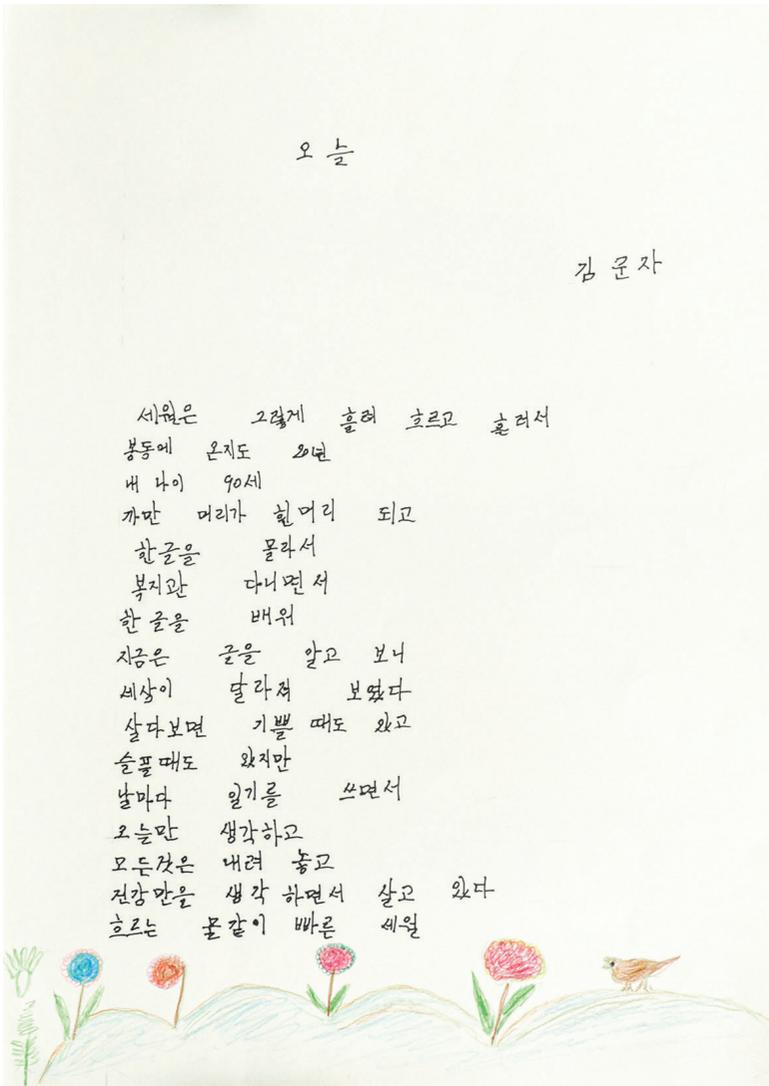
### 나만의 핸드백

가로 25cm×세로 17cm  
가죽에 손바느질



# 김군자

김군자 작가는 90세에 글을 알게 된 기쁨을 창작시에 담았다.



## 오늘 시

오늘

김군자

세월은 그렇게 흘러 흐르고 흘러서  
봄동에 온지도 20년  
배 나이 90세  
까만 머리가 흰 머리 되고  
한글을 몰라서  
복직관 다니면서  
한글을 배워  
자금은 글을 알고 보니  
세상이 달라져 보았다  
살다보면 기쁨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오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내려 놓고  
건강만을 생각 하면서 살고 있다  
흐르는 물 같이 빠른 세월

# 김수연

김수연 작가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다애공동체 김수연

## 행복이 꽃 피는 인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 좋고 사랑 많은 다애공동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처럼 저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직장인입니다. 고산에 있는 희망발전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할 때 환풍기 조립을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다애공동체 안에서 전 저처럼 예쁜 백합 방이고, 담당 선생님이랑 여행가고 외출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외출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도 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마사지도 받습니다. 사고 싶은 예쁜 옷도 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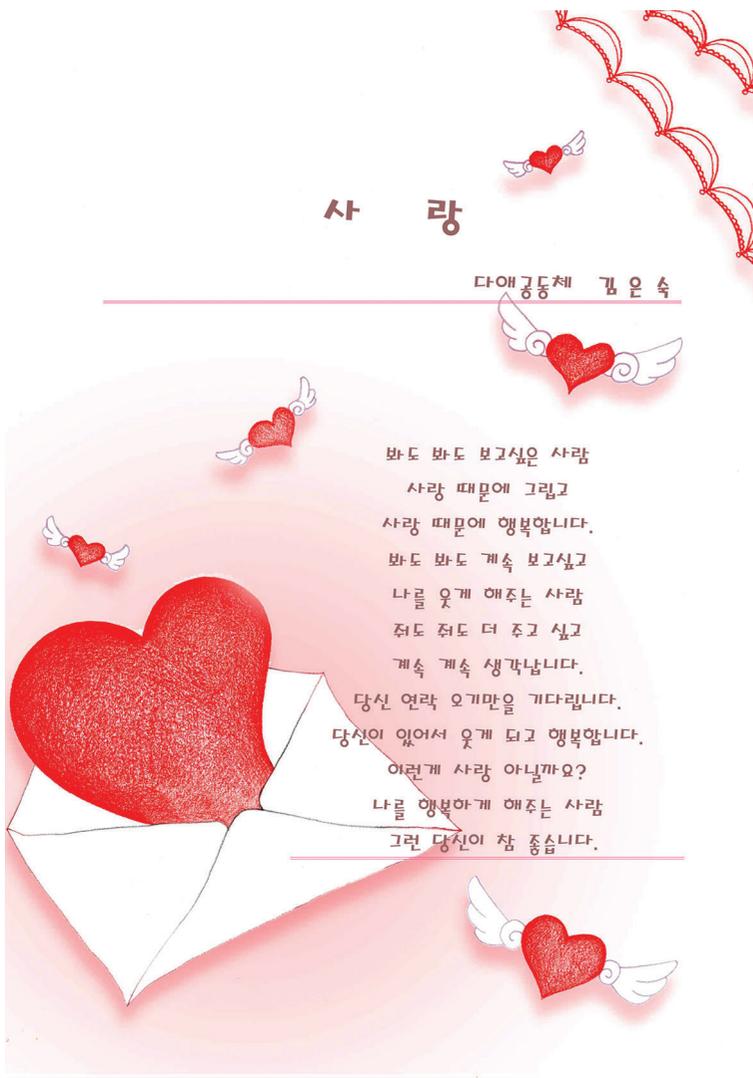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여름에는 호텔로 여행을 가서 물놀이도 하고 야식 먹을 때는 시원한 맥주도 한 잔 했습니다.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캠핑도 다녀왔는데 바비큐 삼겹살이랑 마시멜로도 구워먹고 캠핑장에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데 평소에는 걷기, 달리기, 등산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복싱을 갑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내 모습이 제가 봐도 멋지답니다. 체험홀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버스 타고 출퇴근도 하고, 체험홀에서 직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해먹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은행도 이용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서 즐겁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이 꽃피는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 꽃피는 인생  
생활글

## 김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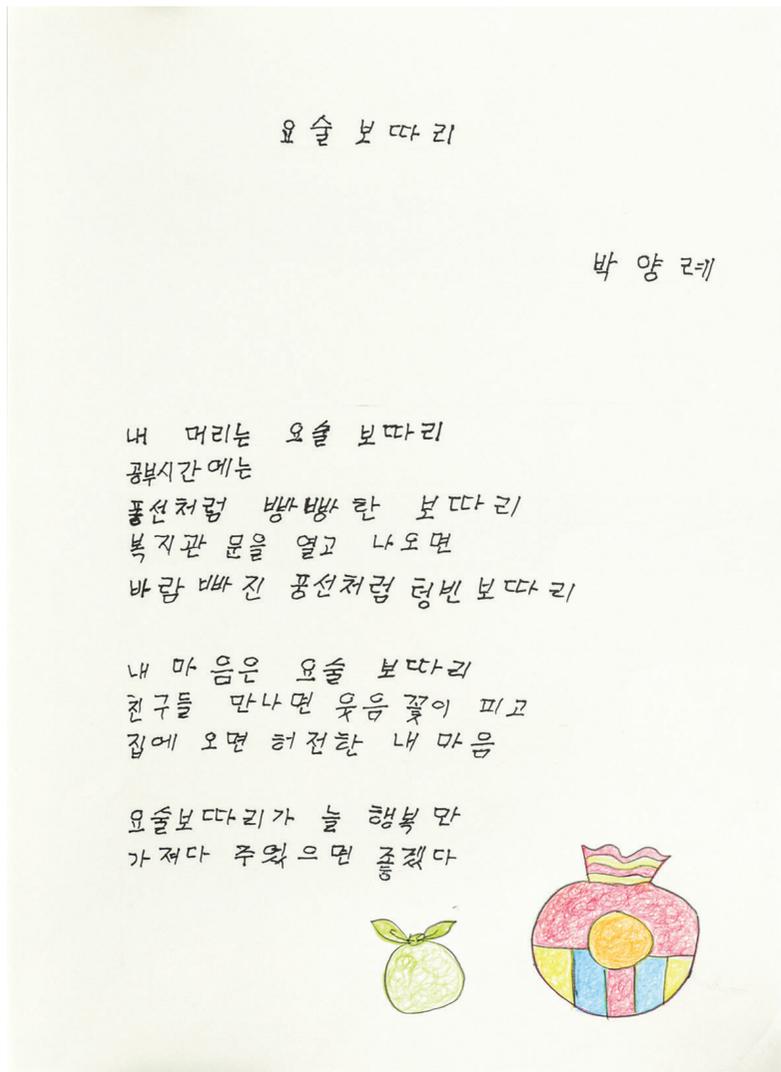
김은숙 작가는 시를 쓸 때 첫사랑의 설렘과 행복을 생각한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행복함을 담았다.



사랑  
시

# 박양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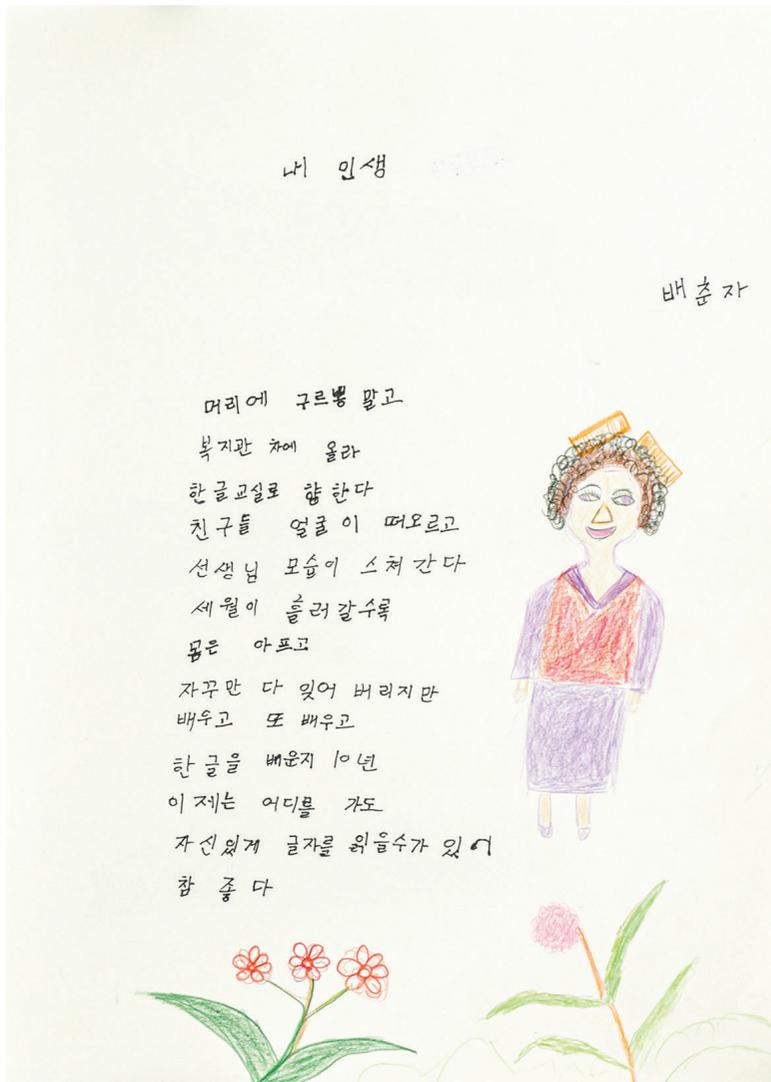
박양례 작가는 한글공부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보따리로 재밌게 표현했다.



요술보따리  
시

## 배춘자

배춘자 작가의 시에는 글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잘 드러나 있다.



내 인생  
시

## 이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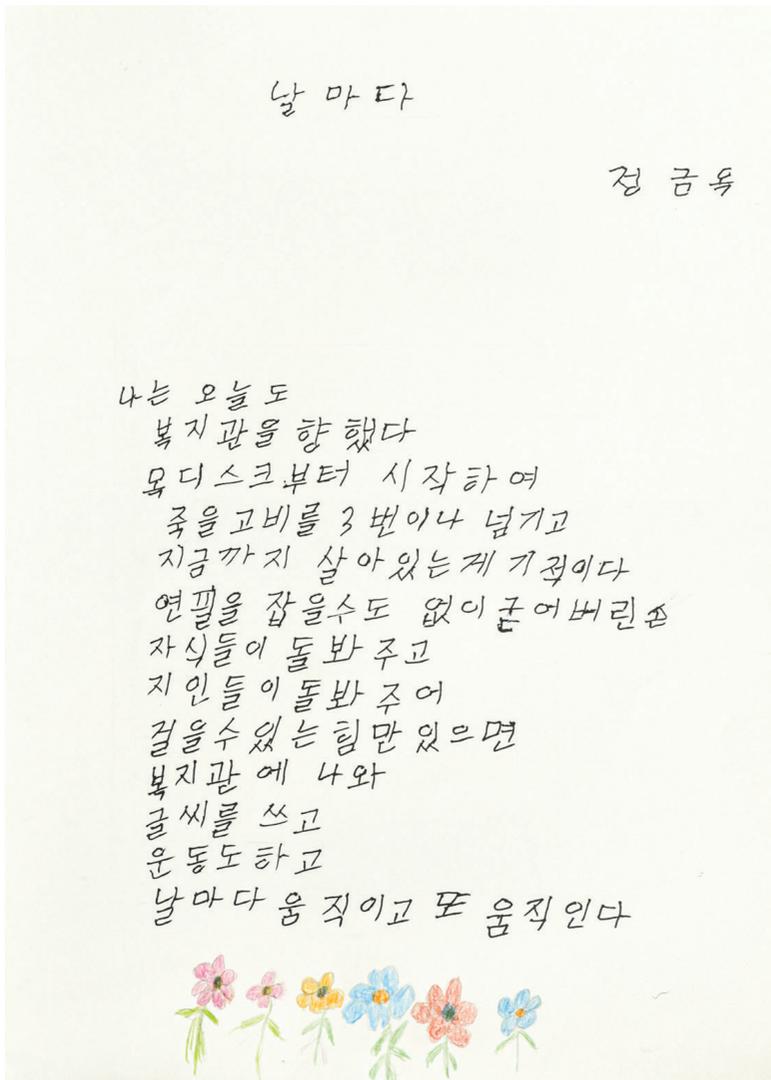
이현숙 작가는 복지관에 다니며 달라진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다.



복지관  
시

## 정금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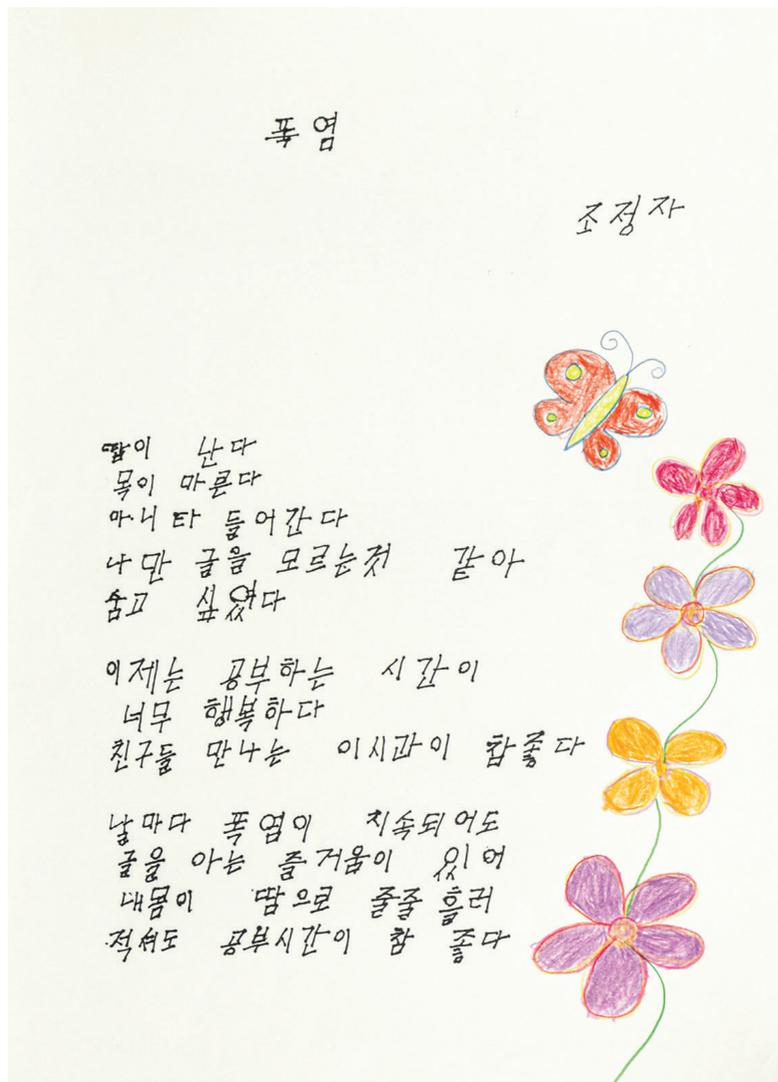
정금옥 작가는 어려워도 공부를 계속하는 자신의 일상을 창작시로 표현했다.



날마다  
시

## 조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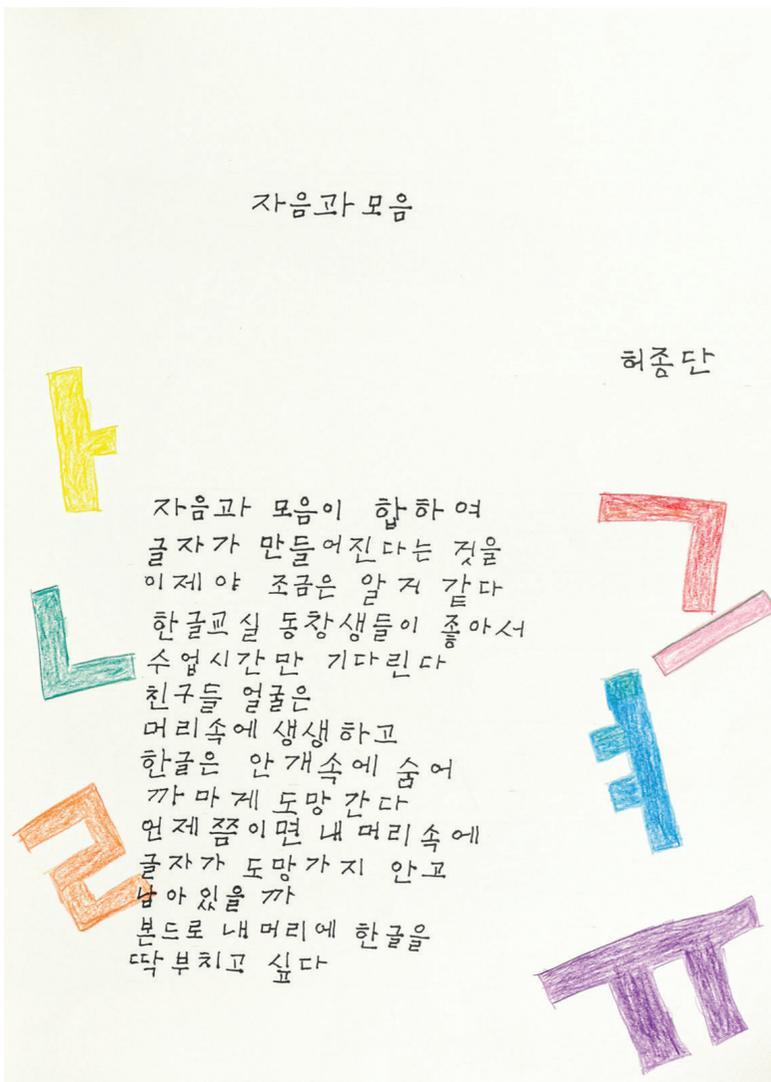
조정자 작가의 시에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폭염  
시

## 허종단

허종단 작가는 한글 공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시로 적었다.



자음과 모음  
시

---

## 강경숙

강경숙 작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진은 걷다가 발견한 하트모양 돌멩이를 찍은 작품이다.

---



---

### 사랑2

가로 28cm × 세로 20cm  
필름 카메라 촬영, 승화 전사용 액자

---

## 김민성

김민성 작가는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에도 풍성한 감정을 느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의자는 앉은 사람을 치유하는 행복의 의자다. 작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의 꽃과 대화를 나누어보라고 말한다.

---



---

아무나 앉아도 좋아요

가로 25cm × 세로 20cm

필름 카메라 촬영, 승화 전사용 액자

---

## 김승관

김승관 작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더운 날 쉬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

듬듬이

가로 28cm × 세로 20cm  
필름 카메라 촬영, 승화 전사용 액자

---

## 김춘석

김춘석 작가는 오랫동안 깊게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작가는 보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 작지만 눈부신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



---

### 작음의 미학

가로 25.5cm × 세로 20.5cm

필름 카메라 촬영, 승화 전사용 액자

---

## 박병익

박병익 작가는 여행 중 만난 계곡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량함을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

---



---

내가 쉬고 싶은 곳  
가로 40cm × 세로 30cm

## 배상철

배상철 작가는 박물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작품의 제목을 '시간의 문턱'이라 지은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시간의 문턱

가로 30cm × 세로 40cm

---

## 이신

이신 작가는 예민한 관찰력으로 조용히 날고 있는 작은 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



---

### 내가 누굴까

가로 20.5cm × 세로 20.5cm  
필름 카메라 촬영, 승화 전사용 액자

---

## 이옥임

이옥임 작가는 자연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가졌다. 이 사진은 빛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전경을 필름 카메라로 담았다.

---



---

### 구름따라 솔솔

가로 20.5cm × 세로 20.5cm

필름 카메라 촬영, 승화 전사용 액자

---

## 최병익

최병익 작가의 작품 속에는 드넓은 만경강이 펼쳐져 있다. 작가는 해질무렵이 풍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



---

오후의 풍경

가로 40cm × 세로 30cm

## 김양숙

김양숙 작가는 행복한 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꽃이 웃는 모습을 그리면서 작가 자신도 행복한 기분이 된다.



방긋 웃는 해바라기

가로 36cm × 세로 25.2cm

종이에 마카, 크레파스

---

## 김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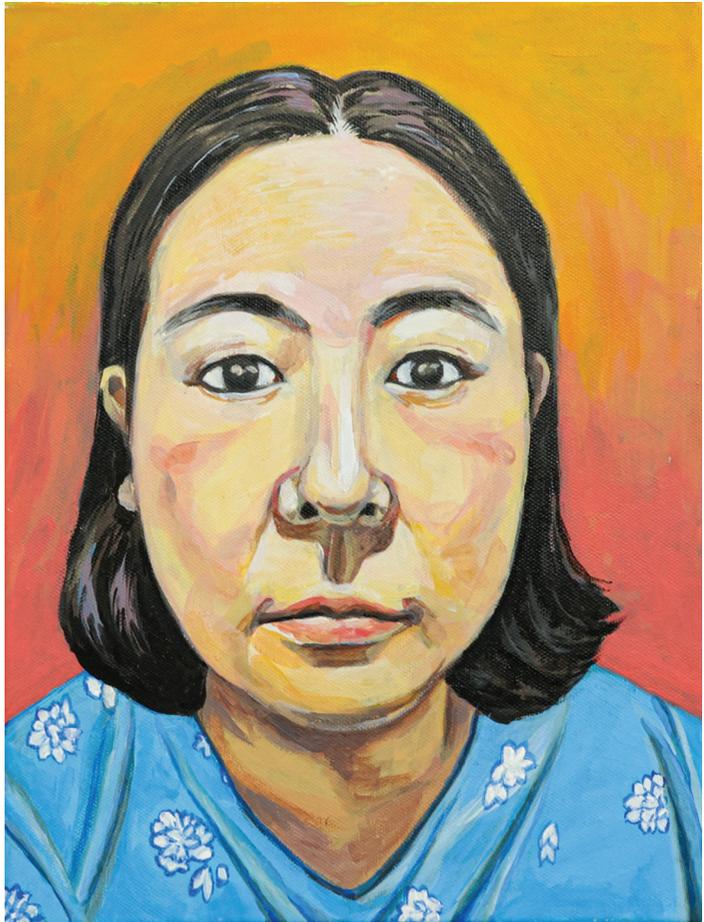
김재이 작가는 사이버대학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다. 그동안 주로 수채화를 그려왔지만 이번 작품은 유화로 그렸다. 이 작품은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며 그린 자화상이다.

---

---

### 자화상

가로 28cm × 세로 36cm  
캔버스에 유화



## 박순임

박순임 작가는 여러가지 색으로 사과나무를 그렸다. 작품의 제목을 재치있게 "나무사과"로 지어 재미를 더해준다.



### 나무사과

가로 36cm × 세로 25cm

종이에 물감, 색연필

---

## 손명옥

손명옥 작가는 엄마와 아버지를 그렸다.

---



---

엄마 아빠

가로 36cm × 세로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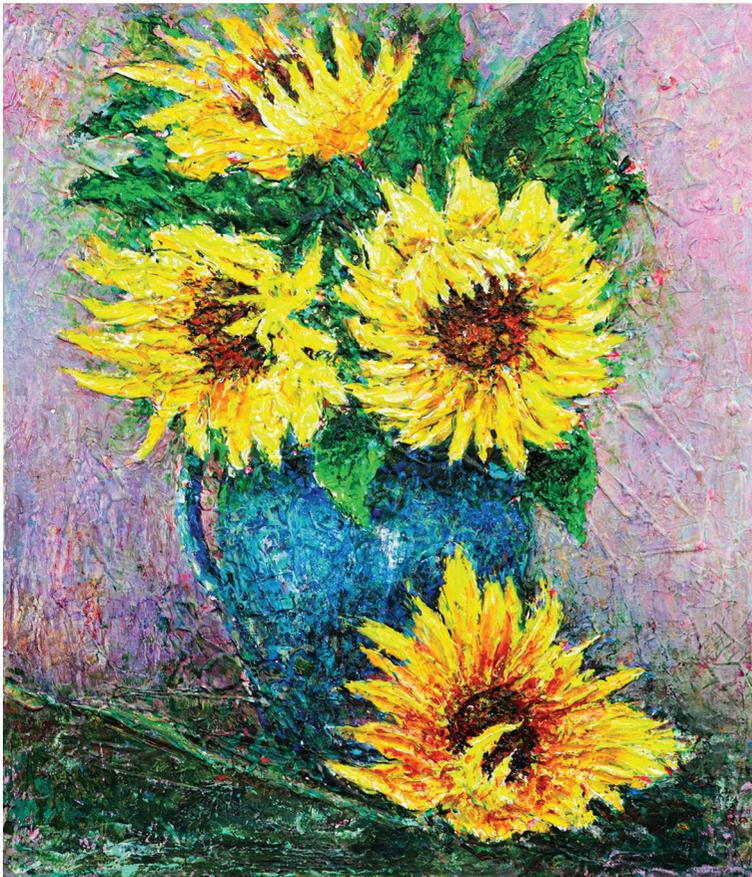
종이에 사인펜, 연필

---

## 양단영

양단영 작가는 아크릴 물감으로 파란색 화병과 노란색 해바라기를 화려하고 강렬하게 표현했다.

---



---

정물

가로 52cm × 세로 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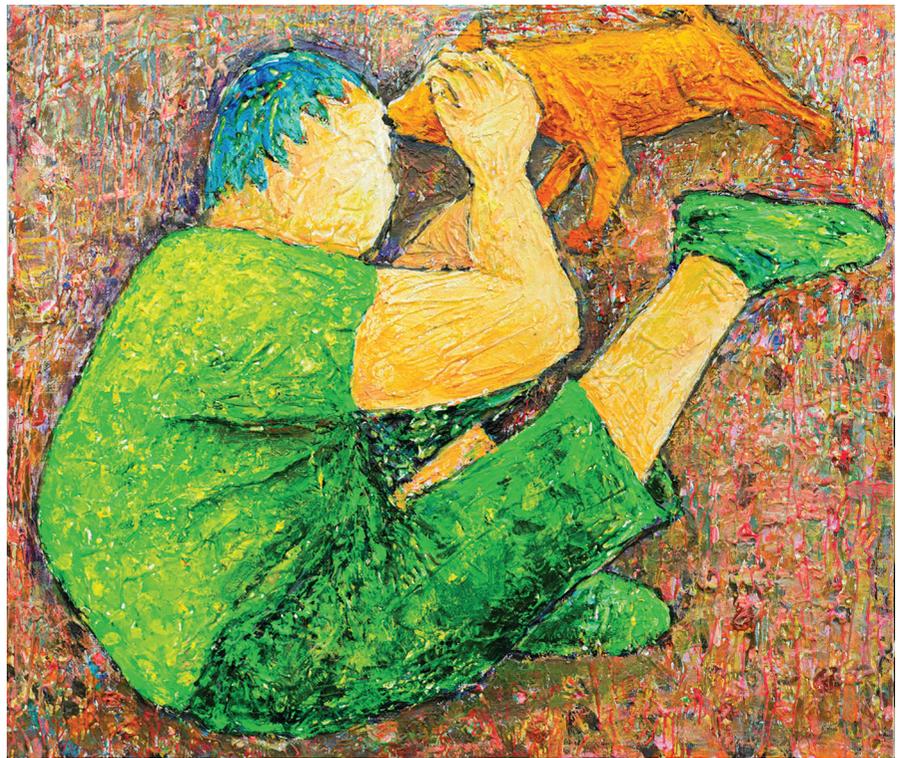
캔버스에 아크릴

---

## 양희춘

양희춘 작가는 개 훈련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 작품에는 훌륭한 개 훈련사의 모습을 담았다.

---



---

훈련사

가로 52cm × 세로 46cm  
캔버스에 아크릴

---

## 윤해란

윤해란 작가는 빨간 장미꽃을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다. 배경색의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강렬한 느낌을 준다.

---



---

### 붉은 장미

가로 52cm × 세로 46cm

캔버스에 아크릴

## 이영미

이영미 작가의 작품에는 풍선을 달고 날아오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함께 날자

가로 39cm × 세로 27cm  
종이에 물감

## 이인순

이인순 작가는 다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행복한 기억을 그림으로 그렸다.



### 놀이공원

가로 39cm × 세로 27cm

종이에 물감

## 이인자

이인자 작가는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했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은 동료들과 추운 겨울 눈사람과 트리를 만들었던 모습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가로 32cm × 세로 29cm  
종이에 색연필, 물감, 스티커

## 이현준

이현준 작가는 화려한 배경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손을 그렸다. 반복된 선으로 그려진 무늬로 꾸며진 손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손을 표현한 것이다.



현준이에 좋은 손

가로 38cm × 세로 27cm

종이에 물감

---

## 이혜순

이혜순 작가는 평소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자주 표현한다. 이 작품은 엄마와 함께 집에서 약과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렸다.

---



---

가을맛 풍기는 약과  
가로 39cm × 세로 32cm  
종이에 색연필, 물감

## 정가영

정가영 작가는 카센터에서 만난 뒤 꿈 속에 찾아온 강아지 '다롱이'를 그렸다.



카센터에서 만난 다롱이  
가로 25.5cm × 세로 36cm  
종이에 사인펜

## 정미자

정미자 작가는 작가의 집 풍경을 표현했다. 꽃, 나무, 동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멋진 자연 친구들과 함께

가로 28cm × 세로 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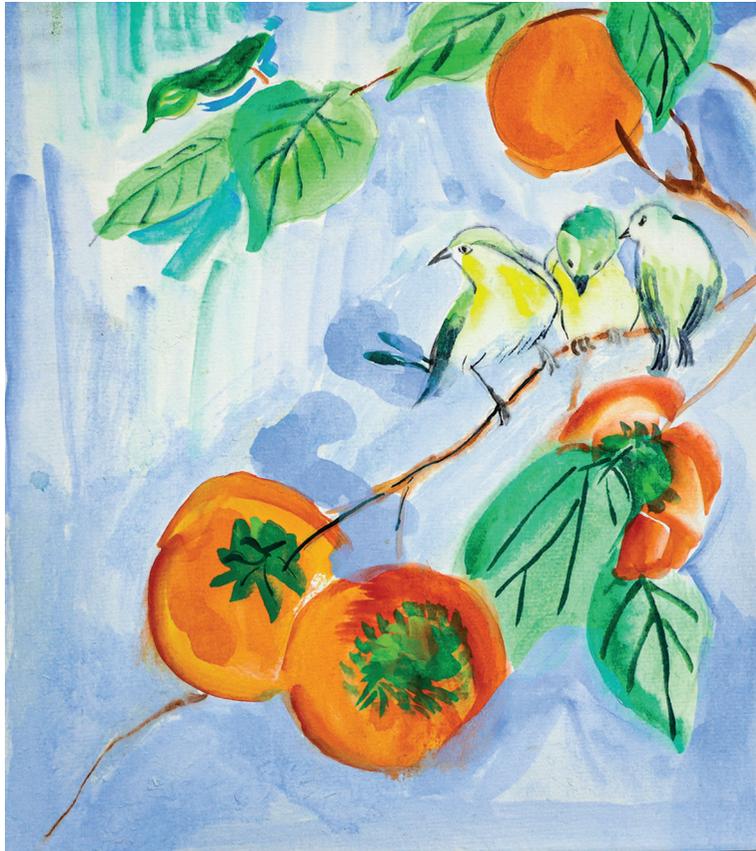
종이에 물감

---

## 정연아

정연아 작가는 사계절 중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이 작품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홍시가 달린 감나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

달디 단 홍시

가로 20cm × 세로 15cm

종이에 색연필, 물감

## 하구은

하구은 작가는 상상 속 장면을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 작품은 말을 타고 도착한 별나라의 모습이다.



별나라

가로 39.4cm × 세로 54.5cm  
캔트지에 수채화물감

## 하구혜

하구혜 작가는 순서를 기다리며 치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 치과의사

가로 52cm × 세로 46cm

캔버스에 아크릴

## 하다숙

하다숙 작가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화가

가로 52cm × 세로 46cm  
캔버스에 아크릴



---

## 하민음

하민음 작가는 노랑색과 초록색으로 마을 담장에 활짝 핀 해바라기를 그렸다. 크고 작은 해바라기들은 함께 있는 아빠, 엄마, 아이처럼 행복해 보인다.

---



---

해바라기

가로 52cm × 세로 46cm

캔버스에 아크릴

---

## 허은지

허은지 작가는 친절하고 따뜻한 교수님을 그림에 담았다. 빨간 옷이 잘 어울리는 교수님의 모습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표현했다.

---

감동을 주신 교수님  
가로 32cm × 세로 41cm  
캔버스에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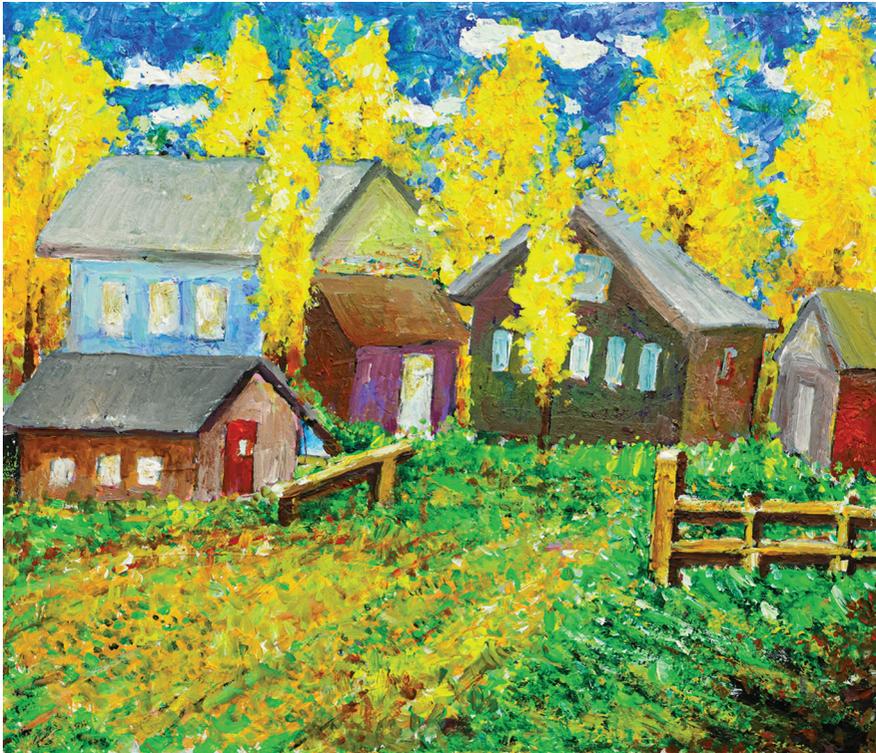


---

## 홍귀범

홍귀범 작가는 동네에 있는 다양한 집의 모습과 밭의 풍경을 아크릴 물감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



---

우리동네

가로 52cm × 세로 46cm

캔버스에 아크릴



2024 완주무장애예술축제

# 서로

## 기간

2024. 11. 5(화) ~ 11. 17(일)

## 장소

북함문화지구 누에 일원

##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 협력

늘푸른그룹홈 다에공동체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문화공동체아리아리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동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은혜의동산 한국장애인부모회완주군지부 완주DMO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완주군

## 접근성 매니저

경희령

## 함께 만든 사람들

곽정미 김수연 김미정 김언경 김재이 송예랑 이순자 이승철 이오순 임정화  
장미경 정우상 정하나 한경희 하구은 허은지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전스비주얼랩 M&J디자인

